

포커스 e-기업

한국후지제록스(주)

# 오픈오피스 비전 선포 및 'DocuWorld 2004'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겨냥해 열린 사무 공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오픈 오피스 프런티어(OOF)' 비전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16, 17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대규모 단독 전시회인 '도큐 월드 2004'를 열어 미래 사무환경을 겨냥한 디지털 복합기·복사기 등 다양한 사무기기를 선보였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한국후지제록스는 'DocuWorld 2004'를 통해 미래 사무 환경의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후지제록스의 사업전략인 '오픈 오피스 프런티어(Open Office Frontier)' 비전을 선포하고,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도큐먼트 센터 C450/360/250 시리즈를 비롯하여 '오픈 오피스'를 실현하기 위한 후지제록스의 미래지향적 사무기기들로 구성된 'Open Office Enabler' 서비스와 관련 제품들을 소개했다.

한국후지제록스가 2005년 신 사업 전략으로 발표한 '오픈 오피스 프런티어(Open Office Frontier)'는 복사기 부문 고객만족도 4년 연속 1위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사무시장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후지제록스의 앞서는 시장환경 대응능력 및 새로운 시대를 맞는 전체 사무환경의 미래 및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신사업 비전 OOF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업무 방법과 사무 환경을 제안하는 '오픈 오피스'와 사무 시장 선두 주자인 '오피스 프런티어'를 복합한 개념이다.

이번 사업 비전 발표 및 전시회 참관을 위해 방한한 후지제록스 해외사업그룹 다카하시 요시아키 후지제록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룹(IBG) 사장은 "신사업 비전은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극복해 조직 구성원, 기업, 고객 사이의 유비쿼터스 협업 실현이 목적"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 사무 환경 구축에 제록스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후지제록스는 오픈 오피스를 실현할 수 있는 문서관리·문서공유·보안·고객환경 맞춤·모바일 서비스 등 5가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 오피스 인에이블러'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선보인 C450/360/250 시리즈와 미래 지향적 사무기기, 대화형 게시판과 전자 게시판 등 첨단 사무 제품을 추가로 도입해 오픈 오피스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업을



▶ '오픈 오피스'의 개념을 설명하는 한국후지제록스의 정광은 사장.



새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광은 사장은 이러한 오픈오피스의 개념 소개와 더불어 “치열한 경쟁속의 사무기기 시장에서 더는 단순한 제품 판

매만으로 승산이 없다”며 “이번 비전 발표가 고객 생산성 향상을 우선하는 종합 사무 환경 컨설팅 서비스 선두 주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 다카하시 요시아키 후지제록스 IBG 사장**

**“제록스의 핵심인 ‘프론티어 정신’으로 사업 전개해 나갈 터”**

**Q 사무환경 변화와 오픈 오피스의 비전은.**

**A** 사무환경의 변화와 기술혁신은 계속되어 나갈 것이며 현재 사무실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크게 디지털과 네트워크다. 기업환경은 인트라(Intra) 오피스 환경에서 기업간 협력이 중시되는 인터(Inter) 오피스로 변하고 있다. 오픈 오피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업혁신에서 가장 중요한건 ‘창조성’이라 생각하는데, 오픈 오피스의 비전은 다름 아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의 실현이다.

**Q 오픈 오피스의 전개방향은.**

**A** 오픈 오피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록스에서는 먼저 디지털복합기와 컬러 복사기를 중심으로 디바이스 보급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제록스가 갖고 있는 기술을 동시에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Q 새로운 비전속에 담긴 제록스의 향후 목표는.**

**A** 사용자가 복잡한 조작법을 익히는 등 사람이 사무기기 시스템에 맞추는 시대는 지났다. 이번 비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사무 환경을 구축하겠다. 문서·관리·공유·모바일·보안 등 5가지 서비스를 기본을 둔 ‘오피스 인에이블러’를 통해 컴퓨터와 정보기술(IT)을 몰라도 ‘현장’에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겠다.

**Q 제록스가 한국시장에 거는 기대 및 투자계획은.**

**A**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큰 시장이 한국시장이라 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강국이란 수

식어가 말해주듯이 한국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장이며 후지제록스 안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투자계획은 잡혀있지 않다. 사무기기 산업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나라들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순서에 따라 투자를 전개해 나갈 계획인 것만 밝히겠다.



▶ 오픈 오피스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다카하시 요시아키 사장과 정광은 사장.



▶ 한국후지제록스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대규모 단독 전시회인 'DocuWorld 2004'를 개최했다.